



법조인 동정

양천수·이민열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제1회 학술상' 수상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와 이민열(44·사법연수원 38기)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12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시상식을 열고 양 교수와 이 교수에게 상금 1000만원씩과 상패를 수여했다.

최병조 학술상 심사위원장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심사회의 결과 심사위원들 만장일치로 양 교수의 저서 ‘삼단논법과 법학방법’과 이 교수의 역서 ‘자유의 법’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며 “전자는 법학방법론의 전반적 주제에 관해 법학의 규범적 특성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저술한 우수한 저서이고, 후자는 무게 있는 원작을 상당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번역한 노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서를 선정한 취지는 법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왔던 우수해외학술서의 번역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2회부터는 법학자의 심층적 연구 장려라는 한국법학교수회의 학술상 취지에 부합하는 더 많은 저서와 역서들이 응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영예로운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며 “학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기에 과연 이 귀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족한 학자가 앞으로 더욱 연구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질로 삼고자 나중에 학자로서 제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학술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특히 저서뿐만 아니라 역서에도 학술상을 수여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학의 성과는 학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법실무에서 활용돼야 할 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학의 고전과 양서가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은 법조계 전체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새기고, 연구에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은 지난해 7월 한국법학교수회와 재단법인 나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김앤장이 세운 공익 재단법인 나은이 후원한다.

(출처/법률신문)